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 주요 지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과제: 화남지역

KIEP 북경사무소 (leehn@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개요
2. 광둥성: 전통 제조업 고도화와 스마트 제조업 육성
3. 푸젠성: 제조업 혁신을 통한 성장 기대

주요 내용

- 중국경제시보(中国经济时报)에서 발표한 중국 대표 제조기지(省)의 제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남지역의 제조업 발전 현황, 과제 및 전망을 정리

- 우수한 제조기반을 보유한 광둥성은 신동력 산업인 스마트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그중 선전시는 제조업 혁신을 통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포산시는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임.

 - 광둥성은 선진 제조 및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변모하였으나, 제조업 관련 핵심기술과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구조 전환이 저해되고 있음.
 - 기업 중심의 혁신 모델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선전시는 토지자원의 상대적인 부족이 제조업 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지 경제(선전시 본사+인근 지역 생산)’ 발전 모델을 추진해옴.
 - 전통 제조업 중심의 포산시는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 구조 고도화의 어려움, 과학연구 투자 부족, 인재 부족, 금융지원 제약 등의 문제에 직면함.

- 푸젠성은 제조업의 혁신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푸저우시는 중소기업들의 R&D 및 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샤먼시는 대외개방 확대와 기업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

 - 푸젠성은 혁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 인터넷 발전, 혁신센터 구축 등 혁신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혁신 플랫폼,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등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 푸저우시는 방직, 전자, 화학, 철강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해왔으며, △자금 조달의 어려움 △조세 부담 △높은 인건비 부담 △환경기준 강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리스크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 샤먼시는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와 선도적인 제조업 녹색 업그레이드 추진으로 제조업 발전의 기반을 다졌으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되어 많은 기업이 우려하고 있음.

1. 개요

■ 중국경제시보(中国经济时报)는 중국의 제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중국 8대 제조기지(省)의 제조업 실태를 조사하여 23편의 기사로 연재

- 이번 현지조사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DRC)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그 결과는 중앙 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 조사 대상인 대표 제조기지는 8대 지역(省)과 각 지역 내 주요 도시를 포함한 24개 성·시·구(省·市·区)임.
 - [화남] 광둥성(广东省): 선전시(深圳), 포산시(佛山); 푸젠성(福建省): 푸저우시(福州), 샤먼시(厦门)
 - [화둥] 저장성(浙江省): 닝보시(宁波), 타이저우시(台州); 상하이시(上海): 푸둥신구(浦东), 자딩구(嘉定); 장쑤성(江苏省): 쑤저우시(苏州), 장베이신구(江北新区)
 - [중서부]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시(合肥), 마안산시(马鞍山); 산시성(陕西省): 따통시(大同), 타이위안시(太原); 산시성(陕西省): 시안시(西安), 바오지시(宝鸡)

그림 1. 중국의 8대 주요 제조업 지역



중국 주요 지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과제: 화남지역

■ 본고에서는 화남지역 주요 도시의 제조업 발전 현황 및 문제점을 비롯하여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요약 정리함.

- 광둥성은 인구 1억 명 이상에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9조 7,278억 위안으로, 중국에서 경제규모 1위인 지역으로 전자정보·컴퓨터·자동차 산업이 발전, 그중 선전시는 남쪽의 물류 거점이자 창업혁신 도시로 광둥성 경제의 1/4을 담당하고 있으며, IT·첨단장비·금융·물류가 발전, 포산시는 민영경제를 중심으로 가전, 자동차 산업이 발전
- 푸젠성은 풍부한 항구자원을 바탕으로 대만, 홍콩, 마카오와 인접해 있으며, 가공업을 중심으로 발전, 그중 푸저우시는 푸젠성의 정치·경제, 문화, 금융의 중심지로 전자정보 산업이 빠르게 발전, 샤먼시는 초기 대외개방을 실시한 경제특구 중 하나로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역, IT,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

표 1. 화남지역 주요 제조업 도시의 경제 현황

지역	인구 (만 명)	GDP (억 위안)		주요 산업	
			2차 산업 부가가치		
광둥성	11,346 [8.1]	97,277.8 [10.8]	40,695.2 [11.1]	컴퓨터통신 및 전자설비제조업, 전기기기, 기자재, 자동차	
	선전	1,302.7 [0.9]	24,222.0 [2.7]	9,962.0 [2.7]	문화 콘텐츠, IT, 현대물류, 금융,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의약, 디지털경제, 신소재, 해양경제
	포산	790.6 [0.6]	9,935.9 [1.1]	5,614.0 [1.5]	가전, 가구, 도자기, 기계장비, 금속 등 가공업, 전기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로봇,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장비, 스마트 가전
푸젠성	3,941 [2.8]	35,804.0 [4.0]	17,232.4 [4.7]	피혁모피, 비금속광물 제품제조, 컴퓨터통신 및 전자설비, 농식품 가공업	
	푸저우	774.0 [0.6]	7,856.8 [0.9]	3,204.9 [0.9]	전자정보, 플라스틱 소재 관(管) 생산, 식품가공, 유리, 의약, 전기에너지, 신소재, 방직업
	샤먼	411.0 [0.3]	4,791.4 [0.5]	1,980.2 [0.5]	공업건축, 교통우편, 여행컨벤션, 무역, 금융, 보험, 증권

주: 통계수치는 2018년 기준; []는 중국 전체 대비 비중(%)을 뜻함.
 자료: CEIC Database,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 참고.

2. 광둥성(广东省): 전통 제조업 고도화와 스마트 제조업 육성

■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제조 기반을 보유한 광둥성은 최근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선진 제조 및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음.

- 광둥성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장쑤성, 저장성과 비교하여 인프라, 산업체계, 제품 브랜드 등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
- 특히 전통 제조업에서 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장 진입, 금융 지원, 과학 기술 혁신, 인재 유치, 지역 개방 등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둠.

- 2018년 광둥성 소재 규모 이상 공업기업¹⁾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3% 성장했으며, 이 중 선진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전체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보다 각각 1.5%p, 3.2%p 높음.
- 전체 공업에서 선진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4%, 31.5%임.
- 신형 공업 상품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에너지 자동차, 탄소섬유 복합소재, 서버, 공업로봇의 생산량은 각각 전년대비 206.1%, 49.4%, 35.4%, 28.3% 성장

■ 그러나 제조업 관련 핵심기술과 부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각종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서 제조업 구조 전환에 저해되고 있음.

- [핵심 경쟁력 부족] 광둥성은 연구개발(R&D)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초연구 분야는 여전히 취약한 편이며, 특히 로봇·반도체·공업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핵심기술과 부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포산시(佛山市) 경제정보화국 린준핑(林俊峰) 부과장은 “기술 장비를 대부분 수입하여 사용하는데 선진 국가에서 중국으로의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장비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은 허가하더라도 사용 조건에 제약이 많다”고 밝힘.
- 2017년 광둥성의 R&D 투자액 2,343억 6,300만 위안 중 기초연구 투자액의 비중은 4.7%에 불과해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며, 핵심 제조기술을 보유한 공업기업의 비중도 10% 이하임.
- [각종 원가 상승 광저우시(广州), 선전시(深圳), 포산시는 최근 수년간 인건비 상승으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동반되면서 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됨.
- 선전시 경제무역정보화위원회 후샤오칭(胡晓清) 부주임은 “주거비용 상승 및 근로자에 대한 기술수준의 기대치가 높아진 점이 인재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힘.
- 광둥성의 제조업 분야 인건비는 인도의 5배, 베트남의 3배이며, 2018년 중국 제조업 500대 기업의 평균 영업 수익률은 6%에 불과하고, 원자재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

■ 이에 광둥성은 향후 지속적인 스마트 제조업을 신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원가절감 지원 및 환경 개선, 스마트 제조 발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임.

- 광둥성 정부는 2017년 8월 기업세, 용지 사용, 사회보험, 산업용 전기, 물류, 자금조달, 거래비용, 신산업 투자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기업 비용 절감 대책인 「실물경제 10조(实体经济十条)」를 발표하였고, 2018년 9월까지 약 1,518억 위안의 비용을 절감시킴.
- 또한 허가 절차 간소화,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1) 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의 기업을 뜻함.

- 2018년 7월에 광둥성 '신용연합 상벌 전담반(广东省信用联合奖惩专责小组)'을 발족했으며, 신용 정보 수집체제를 확립하여 행정심의, 사후감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광둥성은 5개의 성급 제조업 혁신센터를 신규로 건설하고, 약 8,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3,000여 개의 제조업체에 '클라우드 플랫폼(上云上平台)²⁾'을 도입하여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 가속화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일례로 선전 룡화(龍華)단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108대의 자동화 설비가 투입되어 생산라인 작업자 수가 318명에서 38명으로 88% 감소한 반면 생산성은 30% 향상되었으며, 재고는 15% 감소하였고 수익성은 2.5배 향상됨.

가. 선전시(深圳市): 제조업 혁신을 통한 발전

-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도시인 선전시는 기업 중심의 혁신 모델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2018년 공업 부가가치 규모는 광둥성 전체의 약 24%에 달하는 9,962억 위안을 기록함.
- 선전시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명문대나 과학기술 연구소는 없지만, 기업 중심의 독보적인 혁신 모델이 구축되어 있음.
- 2018년 선전시의 R&D 투자규모는 1,000억 위안 이상으로 선전시 GDP의 4.1%를 차지하며, 연구개발 관련 인력·자금·기구설립·발명 특허의 90% 이상이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음.
- 선전시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4.1%)은 세계 1, 2위인 이스라엘과 한국에 근접한 수준이며, PCT(특허) 국제 출원 건수도 중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한편 2018년 선전시의 선진 제조업과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는 각각 6,565억 위안과 6,131억 위안으로, 선전시의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에서 각각 72.1%, 62.3%를 차지
- 선전시는 2018년에 기업의 환경 개선 및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여 추진 중임.
- 「비즈니스 환경 개혁 20조(营商环境改革20条)」는 △무역투자 △산업발전 △인재유치 △정무환경 △녹색발전 △법치 등 6대 부문의 개혁조치를 실시하여 기업의 원가 부담을 절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이 중 전력 원가절감의 경우, 비야디(BYD)는 선전 공장의 전력 원가가 연간 최대 17% 절감될 것이라 예상했으며, 화싱광덴(華星光電)도 연간 25% 절감될 것으로 예상

2) 기업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에 앞장서겠다는 목적이며, 이를 위해 정보화 구축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해줌.

- 「민영경제 발전 지원 조치(关于更大力度支持民营经济发展的若干措施)」는 △기업 원가절감 △은행 여신 △민영기업 신규출자 △민영기업 안정발전 기금 등 4대 영역에 1,000억 위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

■ 한편 토지자원의 상대적 부족이 제조업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선전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선전시에 본사를 설립하고 인근 산업단지에서 제조하는 ‘영지(飞地)경제(the enclave economy)’ 발전 모델을 추진해옴.

- 선전시 면적은 베이징의 1/8 수준에 불과함.
- 대표적으로 ZTE는 허위안시(河源), 비야디(BYD)는 산웨이시(汕尾), 화웨이(Hwawei)는 둥관 송산후(东莞松山湖) 등 인근 도시에 대규모의 제조 단지를 설립·운영 중

■ 향후 선전시는 △혁신생태계 구축 △중국 민영 500대 기업과 세계 500대 기업 육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인재 교육 계획 등을 실시할 계획

- 선전시는 2016년 이래 ‘81조(81条)’, ‘10대 인재 프로젝트(十大人才工程)’ 등 인재정책을 실시하여 우수인재 확보에 주력해옴.
 - 2010년부터 해외 고급 인재에게 최대 15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류 및 출입국 수속 간소화, 자녀 입학과 배우자 취업 지원, 의료보험 혜택 부여 등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고급 인재에 대한 혁신 창업도 지원함.
 - 2018년에는 고급 인재가 1만 명을 넘었고 고급 혁신 창업대표단은 143개를 달성
- 또한 기술혁신 선도기업에 부지를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나. 포산시(佛山市): 새로운 제조업의 발전 방향 모색

■ 포산시는 민영경제가 활발하고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여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전통산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음.

- 2018년 포산시에는 매출액 100억 위안 이상의 대기업이 20개를 넘어섰고, 광둥성 소재 제조업 상위 500대 기업 중 109개가 위치해 있음.
 - 포산시의 대표 제조기업으로는 메이더(美的), 완허(万和), 즈가오(志高) 등이 있음.
- 2018년 포산시의 공업생산총액은 9,935억 8,800만 위안이며, 이 중 민영경제의 비중이 60%를 차지

■ 포산시는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를 비롯해 △구조 고도화 어려움 △과학연구 투자 부족 △인재 부족 및 개발관리 어려움 △금융지원 제약 등의 문제에 직면함.

- 포산시 건설기계업 관계자는 “2018년 중국시장 수요가 30% 이상 감소하고, 해외시장 성장세도 꺾이기 시작했으며, 시장 수요 하락과 맞물려 원자재 가격, 사회보험료, 환경비용, 조세 등의 비용 상승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
- 포산시는 중국 유일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종합개혁(制造业转型升级综合改革) 시범도시로, 현재 저부가가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전통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함.
- 기업의 자주혁신 능력 부족으로 구조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의 과학 연구 투자도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고급 인력 및 인재 개발 시스템이 부족하고, 산업 육성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이 미흡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

■ 향후 포산시는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을 통해 2049년까지 중국 선두의 제조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

- 포산시 주웨이(朱伟) 시장은 “포산시는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거점도시로서 제조업 혁신 능력을 제고해 응용연구 및 산업화 융합발전, 제조업 기업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 산업구조 최적화를 통한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왕하이핑(王海峰) 주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는 포산시가 향후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과학기술 혁신이 관건”이라고 강조
- 포산시는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을 실시하여 제조업 혁신 강화 및 개방 확대를 추진할 예정
- 또한 포산시의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급 인력과 기술 자원이 충분해야 하며, 산업 연계시스템을 제도화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기업을 유치해야 함.

〈글상자〉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 웨강아오 대만구는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연결한 '메가 경제권'을 의미하며, 인구 약 7,000만 명, 면적은 한국의 절반, GDP는 1조 5,000억 달러 정도로 한국과 유사한 수준
 - 웨(粵)는 광둥성, 갱(港)은 홍콩, 아오(澳)는 마카오를 지칭하며, 대만구(大湾区)는 대형 연안(Bay, 만) 지역을 의미
 - *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포산(佛山), 둥관(东莞), 중산(中山), 장먼(江门), 후이저우(惠州), 자오칭(肇庆)
- 국무원은 2019년 2월, 광둥성·홍콩·마카오를 2022년까지 첨단기술 산업에 특화된 세계 일류 도시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발전 계획을 발표
 - 2035년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도쿄만 등을 뛰어넘는 베이(Bay) 경제권 구축
- 중국은 도시 간 연계 강화, 첨단기술 육성 중심의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발전을 추진
 - 홍콩은 국제금융·무역 물류 허브로, 마카오는 관광도시로, 광둥성은 첨단 제조기지로 육성하여 금융, 인재, 교통물류의 상호 연계 발전을 통해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
 - 2018년 10월, 홍콩-마카오-주하이를 잇는 '강주아오 대교(港珠澳大桥)'가 개통되면서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3. 푸젠성(福建省): 제조업 혁신을 통한 성장 기대

- 푸젠성은 최근 제조업의 질적 발전환경 조성하기 위해 산업 인터넷 발전, 제조 혁신센터 구축, 장비 제조업 발전 가속화, 금융서비스 강화 등 일련의 혁신정책을 추진해옴.
- 2019년 푸젠성은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조치(进一步深化改革开放的若干措施)」를 발표하면서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제조업의 질적 발전 촉진을 우선 과제로 설정함.
- 푸젠성 제조업 혁신정책의 시행으로 기업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이 확대됨.
 - 납세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성실 납세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우대혜택을 제공
 - 연구개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젠성 재정부문과 썩예은행(兴业银行)은 푸젠성 기업 기술 개조 투자기금(福建省企业技术改造投资基金)을 공동 조성하고, 2018년 말까지 지분참여, 채권발행 등을 통해 역대 선진 제조기업에 660억 위안(누적기준) 규모의 제조업 기술 개선 투자를 진행

- 제조업의 혁신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푸젠성은 △인재정책 △혁신 플랫폼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등이 여전히 미흡
 - 푸젠성의 기업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재정책 수립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해당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효율적인 고급 인재 양성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
 - 국가급 첨단기술 제조기업 관계자는 “고급인력 채용 및 고용 유지가 어려우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거나 역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언급
 - 푸젠성 과학기술청 관계자는 “인재 유치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우대혜택이 부족하고, 인재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여 관련 지원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
 - 대만계 가공제조기업 관계자도 “구인난으로 인해 자동화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 진다”고 지적
- 푸젠성 내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효율적인 시장화 메커니즘을 통한 혁신적인 플랫폼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 인력 부족 △일부 지방정부의 관리 소홀 △지식재산권 분쟁 △일부 기업의 신청 포기가 문제로 지적됨.

가. 푸저우시(福州市): 제조업 혁신을 통해 변화에 대응

- 푸젠성의 성도(省会)인 푸저우는 과거 정치적인 이유로 공업 발전이 더뎠으나 최근 몇 년간 방직, 전자, 화학, 철강, 장비제조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성장해옴.
 - 푸저우시는 대만과의 관계가 밀접한 지역으로, 과거 정치적인 요인으로 공업 발전이 더뎠음.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제조업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주력해오면서 2018년 상반기에만 121건의 제조업 발전정책을 발표하였고, 기술개선을 위한 투자는 전년대비 5.4% 증가하여 2018년 주요 성(省) 가운데 1위를 차지
 - 2018년 푸저우시에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283개의 국가급 첨단기술 기업이 설립됨.
 - 전자정보와 기술서비스 분야 기업이 약 63%를 차지
- 최근 푸저우시의 제조업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 △조세 부담 △높은 인건비 부담 △환경기준 강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공장 이전 가능성 증대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 [자금 조달의 어려움]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는 다르게 은행의 리스크 평가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조세 부담] 세수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혜택은 다소 복잡하며, 일부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음.
- 연구개발 보조금 비용은 기업이 선지불해야 하며,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맞아야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높은 인건비 부담] 최근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면서 인재 유치의 어려움이 존재
 - 푸젠 오타이 자동화설비기업(福建澳泰自动化设备)의 니후이(倪晖) 사장은 “현재 인건비 상승 영향이 매우 크고 사회보험도 부담이 크며, 관리 인력 및 일반 근로자 고용이 모두 어렵고 근무 기간이 짧다”고 지적
- [환경기준 강화] 기업들은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지만, 높아진 환경보호 기준 탓에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미·중 무역분쟁] 미·중 무역분쟁이 방직업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로 산업(방직업)이 이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는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일부 하이테크 기업들에도 크게 영향을 끼침.

■ 향후 푸저우시는 제조기업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과학기술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R&D 및 혁신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

- 푸저우시는 수년간 과학기술 R&D 투자를 증시하여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비 예산을 늘려왔으나, 현재는 일부 선진제조기업만 R&D 투자를 유지하고 있음.
- 푸저우시 첨단기술 기업의 과학기술 투자 비중은 6.8%로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소프트웨어, IT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통산업 분야의 과학연구 투자 비중 및 혁신 역량은 높지 않음.
-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기술 개발 투자가 쉽지 않으므로, 기업별로 정부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음.

나. 샤먼시(厦门市):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샤먼시는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많은 대만계 기업이 진출하였고,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와 선도적인 제조업 녹색 업그레이드 추진 등으로 제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짐.

- 샤먼시는 제조업 발전의 주체가 기업임을 인지하고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추진해옴.
- 샤먼시는 2018년까지 제조기업 중 66%의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고, 발전단계에 있는 과학

- 기술형 기업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
- 또한 샤먼시는 대외개방 경험을 통한 선진적인 발전 이념으로 제조업 녹색(친환경) 업그레이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녹색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2018년 샤먼시는 「샤먼시 녹색제조 건설 실시방안(厦门市绿色制造体系建设实施方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국가급 녹색제조 건설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대외 의존도가 높은 도시인 샤먼시는 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업들의 우려가 잇따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강화 △통관 환경 최적화 및 원가절감 지원 △재정 지원 확대 △혁신 지원 확대 등 적극적으로 대응
-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이 샤먼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2019년에는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샤먼시 발전연구센터 다이송뤄(戴松若) 부주임은 2019년 미·중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많은 기업들이 수주를 포기하고 새로운 공급상을 찾을 것이며, 향후 산업 및 기술체인의 변화에까지 그 영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
 - 샤먼시 제조 기업들도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될 경우 신규 공급선 확보와 생산구조 재배치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음.
 - 샤먼시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산업 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통관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원가절감 △특별 금융부양책 마련 △(대체 불가능한) 중국 자국제품 수출기업에 대해 면세정책 지원 △연구개발 지원 확대방안을 준비 중임.
- 향후 샤먼시는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추진할 것이며, 선도 기업이 혁신 생태계 구축에 있어 인큐베이팅 지원 등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임.
- 샤먼시 금융업무실 조정서비스처 황안치(黄安琪) 주임 △민영기업의 직접용자 지원 △차등적인 인센티브 조치 △민영 상장사의 주식 담보 리스크를 완화하는 특별기금과 패키지 정책 추진을 건의
 - 샤먼시 과학기술부 순궈(孙卓) 주임은 현재 샤먼시의 외자 혹은 합자 제조기업 대부분이 연구개발 부서는 샤먼시에 두지 않고 생산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기업들이 현지(샤먼시)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도록 지원해야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한다고 언급
 - 또한 선도 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산업체인 및 산·학·연 협력을 강조

[참고자료]

-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广东:传统制造业加速转型 智造业迸发新动能」. 2019. 『中国经济时报』. (5月9日)
-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创新:深圳制造超常规发展的永动力」. 2019. 『中国经济时报』. (5月9日)
-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佛山制造”寻找突围新路径」. 2019. 『中国经济时报』. (5月13日)
-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福建:创新撑起制造业发展晴空」. 2019. 『中国经济时报』. (5月14日)
-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依靠创新突围福州制造业寻求应变之道」. 2019. 『中国经济时报』. (5月15日)
-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厦门:持续开放 强化大企业造“新”能力」. 2019. 『中国经济时报』. (5月17日)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양광모(hope8718@naver.com)

중국칭화대학 국제관계학원 박사과정 채지혜(cjihye86@naver.com)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석사과정 이슬이(lisa3559@nate.com)